



#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 기 혜<sup>1)</sup>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신질환자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재발방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재활 성취라고 할 수 있다(이경희, 2006). 사회재활의 성취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치료과정에 들어온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사회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약물간호 및 증상간호 만큼이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정신간호사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서순자, 1991). 정신간호사가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력과 사회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부정적인 영향요인을 개선하며,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강화하는 중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이경희, 2006).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삶의 만족도는 이들의 재발방지와 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정원철, 박영준과 심경순, 2007).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생활경험에 대한 지각과 평가에 의해 판단되는 주관적인 삶의 질(양옥경, 1998)로서, 경제수준이 빈곤선을 넘을 경우에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생활수준과는 독립적이며, 오히려 우울정도나 성격 및 태도요인, 지각된 낙인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와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서미경과 김정남, 2004)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대한 뇌신경학적인 원인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매우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한경례, 김성완과 이무석, 2002).

그러나 이웃이나 직장 혹은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회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양옥경, 1998). 이러한 주변사람들의 편견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질환자 스스로도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을 내면화하여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되는 것(Link, Cullen, Struening, & Shrout, 1989)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Perlick 등, 2001; Rosenfield, & Sarah, 1997)에 의하면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낙인은 자아 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직업고용이나 사회적응력을 떨어뜨리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삶의 만족도임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낙인보다는 정신질환자들 스스로가 지각하는 낙인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낙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며, 정신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직업을 가진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낙인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서미경과 김정남, 2004)을 나타내며,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정원철 등, 2007)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보고되었는데, 자기효능감 특히 취업중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윤명주, 2005; 노은선, 권혜진과 류은정, 2001)이 확인되었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과를 향상시키고, 고통을 축소시

**주요어:** 지각하는 낙인,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1) 제1저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투고일: 2009년 5월 28일      심사의뢰일: 2009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22일

키는 변인이며, 재할 및 사회적응에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하였다(이경희, 2006).

이에 본 연구는 정신과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고자, 이들이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 정도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항별 낙인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가 지각하는 낙인,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6. 대상자의 진단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낙인

낙인이란 어떤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그들에게 부당하게 매우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표식을 붙일 때 그 표식을 말하며(이부영, 1992), 본 연구에서는 Link와 Cullen(1986)이 개발한 정신질환자의 낙인척도를 이경희(2001)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자원 및 행동 절차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자신감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막연한 확신 또는 믿음을 의미한다면 자기효능감은 그 믿음의 강도와 인지된 능력 수준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오현수(1993)가 변안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전반적인 인생에 관한 행복감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행복감(Lehman, 1983)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Brook, Ware와 Davies-Avery(197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이형기, 김문갑, 김소영, 고해영과 김철준(1996)이 표준화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문헌고찰

### 1. 낙인

낙인(stigma)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표시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주로 정신적, 종교적 문신을 자칭하고 있어 부끄러움과 굴욕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Goffman(1968)은 낙인을 완전한 사회적 승인으로부터 자격을 박탈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매우 깊은 불신의 속성으로, 낙인찍힌 개인에서 그 표식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유발하게 하는 “얼룩진 신분”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광일(1973), 양옥경(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연구마다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정신질환자의 가족, 전문가, 지도자 층 연구에서는 전문가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김용식, 량익홍, 김창윤, 하규섭과 이부영, 1988)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전문가가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안동현과 이부영, 1988). 정신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신과 근무 경험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순자, 1991). 많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특히 정신분열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하였는데 이는 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김철권 2001).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의 지각된 낙인이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지각된 낙인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사회적응 척도’의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Perlick 등, 2001).

낙인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공식적인 낙인’이다. 일단 공식적인 낙인(official labeling)이 주어지면 낙인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사회적 개념을 자신에게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대처를 하게 된다(서미경, 1994).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진단에 의해서 야기되는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가치감의 감소를 보이는데(Corrigan, & Phelan, 2004), 사회적 낙인은 정신질환자들의 환경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지에 접근하는 것을 감소시킨다(안승섭,

1992), 박완숙(2002)의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병식 수준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낙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최이순, 1996),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Bandura, 1977),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낮은 자기효능감의 소유자는 노력을 늦추거나 포기하려 하고, 높은 자기효능감의 소유자는 이를 도전의 기회로 삼고 더 큰 노력을 투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행동은 결국 행위자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논문을 살펴보면 노은선 등(2001)의 연구에서는 다른 만성 질환자에 비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효능이 더 낮음을 보고하였고, 이경희(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정신장애인의 직무만족,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hiu와 Tsang(2004)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효능감이 입원 횟수, 사회적응, 재활결과, 양성증상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낮병원 환자와 정신과 외래 환자의 자기효능을 비교한 손경희(1997)의 연구에서는 낮병원 환자군이 외래 환자군보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문헌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의 변화와 유지에 일관성 있게 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Strecher, DeVellis, & Becker, & Rosenstock, 1986). Owen과 Froman(1989)은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목표를 더 잘 달성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과 환자들이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면 치료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Quality of life)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Campell(1976)은 삶의 만족이 곧 삶의 질이라고 하였는데 삶의 만족 개념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면으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Capinello, Knight, Markowitz와 Pease(2000)는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우울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신체질환에 비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연구재정의 부족, 정신 질환자들의 주관적 보고의 신뢰성에 대한 편견, 삶의 질의 정의 또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공통된 기준의 부재, 삶의 질에 대한 평가 방법의 신뢰도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하였다(Lehman, 1983).

국내연구로는 김영돈의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지수에 관한 예비조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상관 요인은 성격 및 태도요인으로 특히 반사회성 인격, 경계성 인격, 히스테리성 인격 및 자기애적 인격집단에서 생활에 대한 불만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김영돈, 1988).

Rosenfield와 Sarah(1997)는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직업적, 재정적 재활 서비스, 여가활동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지각된 낙인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낙인을 많이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의 낙인보다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낙인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Mechanic, McAlpine, Rosenfield와 Davis(1994) 역시 지각된 낙인과 삶의 질은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정도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소재 S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환자들이었다.

이중 설문 조사가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증상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대상자와 설문 조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한 대상자를 제외한 총 195명이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 3. 연구도구

#### 1) 낙인

정신질환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낙인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Link와 Cullen(1986)이 개발한 “Devaluation, & Discrimination”을 이경희(2001)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개의 문항의 6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매우 아니다” 6점으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72점으로 측정된다. 6개의 문항은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점수 계산시 역점수를 주어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이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2$ 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오현수(1993)가 번안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확실히 아니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서,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이 높음을 뜻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으며, 오현수(199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58$ 이었다.

#### 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Brook 등(1979)이 개발한 Psychological General Well-Being Index를 이형기 등(1996)이 번안한 Korean Psychological Gener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개의 문항의 6점 척도로서, 각 문항마다 0점에서 5점으로 측정되는 서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이형기 등(1996)의 번역 도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자료를 수집하기 전, 해당 대학병원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해당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가 자가 보고식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이었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program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가 지각하는 낙인,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LSD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는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 5)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45.6%, 여자가 54.4%로 나타났다. 평균나이는 38.4세로 나타났으며, 18세에서 39세 사이는 58.5%, 60세에서 65세 사이는 6.2%로 나타났다. 학력은 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이 각각 44.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무학은 없었으며, 초등학교 졸업이 0.5%, 중학교 졸업이 5.1%로 선행 연구와 비교하면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59.5%, 기혼이 35.4%, 이혼과 사별이 5.1%로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41.0%,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가 21.5%로 고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무직이 50.3%, 정규직 9.7%, 임시직 5.1%, 학생 15.4%로 무직의 비율이 과반수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35.4%, 불교 17.4%, 천주교 15.4%, 무교 및 기타가 31.8%로 거의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병기간은 1년 미만 21.0%, 2~5년 30.3%, 6~10년 22.6%, 11년 이상 26.2%로 나타났다.

치료형태는 외래와 정신보건센터 병행이 2.6%, 외래진료는 95.4%로 나타났으며, 약물이나 증상교육은 받지 않은 경우가 46.2%, 받은 경우가 53.8%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 비율이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n=195)		
특성	구 분	백분율(%)
연령	18~29	55(28.2)
	30~39	59(30.3)
	40~49	38(19.5)
	50~59	31(15.9)
	60~65	12( 6.2)
성별	남자	89(45.6)
	여자	106(54.4)
결혼상태	미혼	116(59.5)
	기혼	69(35.4)
	이혼	8( 4.1)
	사별	2( 1.0)
학력	초졸	1( 0.5)
	중졸	10( 5.1)
	고졸	87(44.6)
수입	대졸	87(44.6)
	대학원졸	10( 5.1)
	100만원 미만	29(14.9)
	100~200만원 미만	44(22.6)
	200~300만원 미만	42(21.5)
직업	300만원 이상	80(41.0)
	무직	98(50.3)
	정규직	19( 9.7)
	학생	30(15.4)
	임시직	10( 5.1)
종교	기타	38(19.5)
	기독교	69(35.4)
	불교	34(17.4)
	천주교	30(15.4)
	무교	58(29.7)
유병기간	기타	4( 2.1)
	1년 미만	41(21.0)
	2년 이상~5년 미만	59(30.3)
	6년 이상~10년 미만	44(22.6)
치료유형	11년 이상	51(26.2)
	없다	4( 2.1)
질병교육	정신과 외래	186(95.4)
	외래+센터	5( 2.6)
진단	받은 적 없다	90(46.2)
	받은 적 있다	105(53.8)
	정신분열병	100(51.3)
	양극성 장애	46(23.6)
	주요 우울장애	49(25.1)

2.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항별 낙인의 정도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문항별 낙인정도는 2.87점으로 나타났다. 지각하는 문항별 낙인의 정도에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한동안 잘 지냈어도 그들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는 3.51점으로, 이성과 테이트하는데 있어서 정신과 환자를 꺼리는 문항은 4.4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회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보다 일반인을 더 선호할 것이다’는 다른 문항보다 4.63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항별 낙인의 정도

(n=195)		
문항	낙인지각	M±SD
1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을 친한 친구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2.22±1.02
2	사람들은 정신과에 입원했던 사람도 보통사람들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15±0.93
3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도 보통사람처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41±1.03
4	사람들은 정신과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지만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다.	2.29±1.17
5*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인생실패라고 생각한다.	2.46±1.31
6*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한동안 잘 지냈어도 그들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3.51±1.40
7*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 했던 사람은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2.44±1.18
8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채용할 것이다.	2.64±1.26
9*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 일반인을 더 선호할 것이다.	4.63±1.25
10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도 보통사람처럼 대해준다.	2.50±1.22
11*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은 심한 정신병으로 입원했던 남자와 테이트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4.42±1.27
12*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94±1.36

\* 문항은 역점수를 주어 계산함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

낙인의 지각 정도가 남자는 2.82점, 여자는 2.93점으로 여자가 지각하는 낙인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 $t=5.656, p=.018$ ).

연령에 따라 지각하는 낙인정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낙인의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F=0.188, p=.008$ ).

학력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84명(95.3%)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2.80점, 대학교 졸업 2.93점, 대학원 졸업 3.07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낙인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가족의 수입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수입이 많을수록 낙인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는 결혼을 한 대상자가 지각하는 낙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는 무직이 2.99점, 대부분 주부인 기타가 2.91점으로 낙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학생, 임시직은 각각 2.82점, 2.64점, 2.54점으로 지각하는 낙인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F=2.455, p=.047$ )〈표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

(n=195)					
특성	구분	M ± SD	t/F	p	사후검정
연령	18~29 <sup>a</sup>	2.66±0.60	0.188	.008*	a<b a<d
	30~39 <sup>b</sup>	2.96±0.69			
	40~49 <sup>c</sup>	2.86±0.58			
	50~59 <sup>d</sup>	3.09±0.79			
	60~65 <sup>e</sup>	2.97±0.48			
성별	남자	2.82±0.57	5.656	.018*	
	여자	2.93±0.73			
결혼 상태	미혼	2.83±0.67	1.605	.190	
	기혼	3.00±0.63			
	이혼	2.62±0.75			
	사별	2.50±0.35			
학력	중졸	2.85±0.56	1.095	.360	
	고졸	2.80±0.66			
	대졸	2.93±0.68			
	대학원졸	3.07±0.64			
수입	100만원 미만	3.05±0.75	2.176	.092	
	100~200만원 미만	2.75±0.58			
	200~300만원 미만	3.03±0.71			
	300만원 이상	2.81±0.66			
직업	무직 <sup>a</sup>	2.99±0.70	2.455	.047*	a>c a>d
	정규직 <sup>b</sup>	2.82±0.58			
	학생 <sup>c</sup>	2.64±0.61			
	임시직 <sup>d</sup>	2.54±0.50			
	기타 <sup>e</sup>	2.91±0.63			
종교	기독교	2.93±0.65	0.173	.952	
	불교	2.89±0.69			
	천주교	2.86±0.67			
	무교	2.83±0.67			
	기타	2.85±0.77			

\*  $p<.05$

####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

대상자의 진단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는 정신분열병 2.86점, 양극성장애 2.83점, 주요우울장애가 2.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병기간과 낙인의 지각정도는 11년 이상 앓은 대상자가 2.9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4).

〈표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 (n=195)

특성	구분	M ± SD	t/F	p
진단	정신분열병	2.86±0.71		
	양극성장애	2.83±0.65	0.555	.575
	주요우울장애	2.96±0.57		
유병기간	1년 미만	2.89±0.76		
	2년 이상~5년 미만	2.92±0.65	0.681	.565
	6년 이상~10년 미만	2.76±0.56		
	11년 이상	2.93±0.68		
없다	3.37±0.55			
치료유형	정신과 외래	2.87±0.65	1.250	.289
	외래+센터	2.71±0.98		
질병교육	받은 적 없다	2.91±0.62	0.417	.519
	받은 적 있다	2.85±0.69		

#### 5. 대상자가 지각하는 낙인,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낙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r=-.233, p=.001$ ).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r=-.424, p=.000$ )(표 5).

〈표 5〉 대상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n=195)

	낙인 r(p)	자기효능감 r(p)	삶의 만족도 r(p)
낙인		.171 (.017*)	-.233 (.001**)
자기효능감	.171 (.017*)		-.424 (.000***)
삶의 만족도	-.233 (.001**)	-.424 (.000***)	

\*p<.05, \*\*p<.01, \*\*\*p<.001

#### 6. 대상자의 진단에 따른 지각, 낙인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로 진단을 받은 정신과 외래 환자의 지각된 낙인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정도 및 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정신분열병 대상자의 지각하는 낙인정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r=-.231, p=.021$ ).

양극성장애 대상자의 지각하는 낙인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362, p=.013$ ).

주요우울장애 대상자의 지각하는 낙인 정도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단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n=195)

	정신분열병 (n=100)	양극성장애 (n=46)	주요우울장애 (n=49)
자기효능감	.119 (.237)	.362 (.013*)	.119 (.237)
삶의 만족도	-.231 (.021*)	-.198 (.186)	.114 (.437)

\*p<.05

## V. 논 의

본 연구는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해 알아 봄으로써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 정도는 2.87점으로 이경희(2001)연구의 2.82점과 비슷하였고, 서미경(1994)연구의 3.1점, 성준모(1996)연구의 3.5점, 정선미(2004)연구의 3.78점 보다는 점수가 낮아 지각하는 낙인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의 정도에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 일반인을 더 선호할 것이다'가 4.63점으로 지각하는 낙인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소연(2004)의 연구에서 4.71점, 정선미(2004)의 연구에서 4.65점 등으로 구직과 관련해서는 지각하는 낙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분열병의 경우 증상으로 인해 직업을 갖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질병의 특성상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고, 병식의 결여로 재발이 잦아 인격이 황폐화되는데, 김광일(1989)의 연구에서도 유병기간이 11년 이상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자체가 만성화 되기 쉽다는 이론적 배경과 맞을 뿐만 아니라, 무직의 비율이 이경희(2001)는 48.2%, 곽의향(2000)은 58.2%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선미(2004)도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낙인 정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한경례 등(2002)이 정신분열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문 기술직에 비해 농업, 생산직, 무직의 순으로 낙인을 더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신과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취직,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낙인 정도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되며, 향후 효과적인 증상관리, 직업생활 유지 및 직업재활 교육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하는 낙인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하는 낙인 정도가 높은 것은 정신질환 자체가 만성질환이기에 만성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Link 등(1989), 성준모(1996), 정선미(2004)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낙인이 크게 지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성과의 테이트하는데 있어서 정신과 환자를 꺼리는 문항에서는 4.42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였다. 성준모(1996) 연구에서 4.27점, 박완숙(2002) 연구에서 4.41점, 유소연(2004) 연구에서도 4.52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한동안 잘 지냈어도 그들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문항에서는 3.51점으로 지각하는 낙인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선미(2004) 연구에서는 4.03점, 유소연(2004)의 연구에서는 3.92점으로 점수가 높아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것에는 이중적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유병기간과 낙인의 지각정도는 11년 이상 앓은 대상자가 2.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소연(2004)과 성준모(1996) 연구에서는 유병기간이 길수록, 약물 또는 증상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낙인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삶의 만족도에서 부적 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는 지각하는 낙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Mechanic 등(1994)과 정선미(2004), 박소현(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유소연(2004)은 사회적응성, 가족지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낙인을 지각하는 정도가 낮

기 때문에 낙인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를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노은선 등(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유소연(2004), 이경희(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낙인을 줄이거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지지체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족들의 낙인극복 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에서는 정신분열병에 비해 주요우울장애의 낙인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한경례 등(2002)의 연구에서도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낙인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우울 증상 감소를 통해 낙인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단별 자기효능감을 비교하면 주요우울장애 대상자들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우울 증상으로 인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며, 노은선 등(2001)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결과에서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에 비해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아 정신과 환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는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 순으로 주요우울장애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Rosenfield와 Sarah(1997) 연구에서도 지각된 낙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낙인을 많이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인정도를 감소시키려는 대처방안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접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정도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효율적인 간호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위해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로는 정신질환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낙인을 알아보기로 Link와 Cullen(1986)이 개발한 “Devaluation, & Discrimination”을 이경희(2001)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오현수(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17문항의 자기효능 설문으로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이 높음을 뜻한다. 삶의 만족도는 본 연구에서는 Brook 등(1979)이 개발한 Psychological General



Well-Being Index를 이형기 등(1996)이 번역하여 개발한 후 사용한 Korean Psychological General Well-Being Index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조사는 정신과 외래 환자로서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지정하여 준 환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자가 서면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12.0을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 평균 및 백분율을 구하고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LSD로 사후 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자가 54.4%로 나타났으며, 18세에서 39세 사이가 58.5%, 학력은 다수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이 각각 44.6%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무학은 없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59.5%, 기혼이 35.4%로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41.0%로 나타났으나, 직업은 무직이 50.3%로 과반수이었다. 또한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병기간은 1년 미만 21.0%, 2~5년 30.3%, 6~10년 22.6%, 11년 이상 26.2%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는 95.4%로 나타났으며, 약물이나 증상교육은 받지 않은 경우가 46.2%, 받은 경우가 53.8%로 교육을 받은 대상자 비율이 많았다.
2. 대상자가 지각하는 문항별 낙인의 정도에서는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한동안 잘 지냈어도 그들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는 3.51점으로, 이성 과 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정신과 환자를 꺼리는 문항은 4.4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회사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보다 일반인을 더 선호할 것이다’는 다른 문항보다 4.63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에서 직업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는 무직이 2.99점, 대부분 주부인 기아가 2.91점으로 낙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학생, 임시직은 각각 2.82점, 2.64점, 2.54점으로 지각하는 낙인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F=2.455$ ,  $p=.047$ ). 또한 낙인의 지각 정도가 남자는 2.82점, 여자는 2.93점으로 여자가 지각하는 낙인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5.656$ ,  $p=.018$ ). 연령에 따라 지각하는 낙인정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낙인의 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0.188$ ,  $p=.008$ ).

4.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과 지각하는 낙인과의 관계에서 대상자의 진단명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정도는 정신분열병 2.86점, 양극성장애 2.83점, 주요우울장애가 2.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유병기간과 낙인의 지각정도는 11년 이상 앓은 대상자가 2.9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5. 대상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낙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r=-.233$ ,  $p=.001$ ),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나( $r=-.424$ ,  $p=.000$ ).
6. 대상자의 진단에 따른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정신분열병 대상자의 지각하는 낙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나( $r=-.231$ ,  $p=.021$ ). 양극성장애 대상자의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r=.362$ ,  $p=.013$ ), 주요우울장애 대상자의 지각하는 낙인 정도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연구
  - 1)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의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2) 본 연구에서는 질병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은 정신분열병 환자에 비해 양극성장애와 우울장애의 대상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향후 대상자 수를 동일하게 하여 각 질병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낙인,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재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본 연구결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지각하는 낙인을 수정하는 간호중재가 효과적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재연구가 시행될 것을 제언한다.
  - 4) 마지막으로 향후 여러 분야에서 정신과 환자들의 낙인 대처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 간호 실무

- 1) 본 연구결과 직업이 없는 경우는 지각하는 낙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을 위해서는 간호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인 직업재활 및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하는 낙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질환이 만성화될수록 낙인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정신간호 실무에서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양극성 장애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4) 지각하는 낙인에 낙인이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낙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낙인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곽의향(2000). *정신질환자가 지각한 낙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주.
- 김광일(1973). 한국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도. *대한의학협회지*, 17(3), 31-34.
- 김광일(1989).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조사. *정신건강연구*, 8, 118-132.
- 김영돈(1988). *정신장애자의 생활 만족 지수에 관한 상관변인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용식, 량익홍, 김창운, 하규섭, 이부영(1988).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조사를 위한 예비적 연구. *서울의대 정신의학*, 13(1), 27-36.
- 김철권(2001). 매스미디어에 비친 정신질환자의 모습.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노은선, 권혜진, 류은정(2001).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5), 912-919.
- 박소현(2008).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 및 사회적 지지 지각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완숙(2002). *정신질환자의 병식수준에 따른 자아중중감, 우울감, 안녕감, 낙인지각 및 대처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서미경(1994).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대처방법의 측정.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집*, 145-158.
- 서미경, 김정남(2004). 지각된 낙인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4), 173-193.
- 서순자(1991).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과 간호사의 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성준모(1996).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낙인의 정도와 그 대처경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손경희(1997). *낙병원 환자와 정신과 외래 환자에 대한 자기효능 비교연구*. *정신간호학회지*, 5(2), 229-238.
- 안동현, 이부영(1988).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반응. *서울의대 정신의학*, 11, 281-297.
- 안승섭(1992). *한국의 정신질환자 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양옥경(1998).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한국사회복지학*, 35(8), 231-261.
- 오현수(1993). 여성 관절염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대한간호학회지*, 23(4), 617-630.
- 유소연(2004).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지각된 낙인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윤명주(2005). *정신장애인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경희(2001).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한 낙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경희(2006).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부영(1992). *정신질환자 낙인의 형성과정과 그 역사적 조명*.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춘계자료학술대회자료집*.
- 이형기, 김문갑, 김소영, 고혜영, 김철준(1996). 한글 번역판 일반적 심리상태 설문지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임상약리학회지*, 4(2), 148-165.
- 정선미(2004).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낙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정원철, 박영준, 심경순(2007). 작업 활동 중인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기술과 가족지지, 자존감과 낙인지각간의 인과관계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25-49.
- 최이순(1996).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환자 가족들의 태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5(1), 69-89.
- 한경례, 김성완, 이무석(2002). 정신분열병 환자의 낙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신경정신의학*, 41(6), 1185-119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 191-215.
- Brook, R. H., Ware, J. E. Jr., & Davies-Avery, A. (1979).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health for adults in the health insurance study* (Vol. 8).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31, 117-124.
- Capinello, S. E., Knight, E. L., Markowitz, F. E., & Pease, E. A. (2000). The development of the mental health confidence scale: A measure of self-efficacy in individuals diagnosed with mental disorder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3(30), 236-243.
- Chiu, F. P. F., & Tsang, H. W. H. (2004). Validation of the Chinese general self-efficacy scale among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a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7(2), 159-162.
- Corrigan, P. W., & Phelan, S. M. (2004). Social support and recovery in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6), 513-523.
- Goffman, E. (1968).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Harmond Worth: Penguin Books.
- Lehman, A. (1983). The well-being of chronic mental patient: Assessing their quality of life. *Arch General Psychiatry*, 40, 369-373.
- Link, B. G., & Cullen, F. T. (1986). Psychiatric rehabilitation for chronic mental patients. *Psychiatric Annals*, 13, 539-549.
-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L., & Shrout, P.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 400-423.
- Mechanic, D., McAlpine, D., Rosenfield, S., & Davis, D. (1994). Effects of illness attribution and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Social Science & Medicine*, 39(2), 155-164.
- Owen, S. V., & Froman, R. D. (1989). Using self-efficacy to evaluate training program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technology and innovations in training and education*, 227-236.
- Perlick, D. A., Rosenbeck R. A., Clarkin, J. F., Sirey, J. A., Salah, J., Struening, E. L., et al. (2001). Adverse effects of perceived stigma on social adaptation of persons diagnosis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Psychiatric Service*, 52(12), 1627-1632.
- Rosenfield, & Sarah (1997). Labeling mental illness: The effect of received and perceived stigma on life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660-672.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67.
- Strecher, V. J., Devellis, B. M., Becker, M. H., & Rosenstock, I. M. (1986).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chieving health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3(1), 73-92.

## Self-perceived Stigma,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Psychiatric Outpatients

Sung, Ki Hye<sup>1)</sup>

1) RN, Nursing Depart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elf-reported perceived stigma,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Methods:** In the present study, researchers analyzed the survey responses of 195 patients recruited in the S hospital psychiatry outpatient clinic. The measurement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Devaluation & Discrimination" scale to determine perceptions of stigmatization, general and social efficacy scales to measure self-efficacy, and the "General Well-Being Index" to measure quality of life in psychiatric outpatient. Statistical analysis

included means with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perceived stigma and quality of life in psychiatric outpatients ( $r=-.233$ ,  $p=.001$ )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 $r=-.424$ ,  $p=.000$ ).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higher self-perceived stigma scores were related to reduced quality of life among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r=-.231$ ,  $p=.021$ ), whil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perceived stigma scores and self-efficacy scores among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 $r=.362$ ,  $p=.013$ ).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include education programs to reduce stigmatization and enhance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patients with chronic psychiatric illnesses.

**Key words:** Self-perceived stigma, Self-efficacy, Quality of life

Corresponding author: Sung, Ki Hye

Department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hangro(28, Yeongeondong),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2451, E-mail: skh9017@ewhain.net